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제놀루션(225220)

제약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상아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놀루션(225220)

분자진단시스템의 강화와 RNA 기반기술의 실질적 상용화를 추진하는 제약기업

기업정보(2021/09/24 기준)

대표자	김기욱
설립일자	2006년 02월 20일
상장일자	2020년 07월 24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주요제품	핵산추출 시약, 핵산추출 기기 등

시세정보(2021/09/24 기준)

현재가	17,0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626억 원
발행주식수	9,567,180주
52주 최고가	24,490원
52주 최저가	11,970원
외국인지분율	0.0%
주요주주	
호일바이오메드	10.62%
김기욱	6.27%

■ 핵산추출시스템 플랫폼 및 차세대 분석법 기반의 진단 고도화 연구

제놀루션(이하 동사)은 분자진단 검사를 위한 핵산추출 시약과 기기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동사의 제품은 바이러스성 질환, 성 매개 감염병, 박테리아성 질환 등의 확진을 위해 수행되는 진단 검사에 사용된다. 동사는 장비의 소형·자동화를 통해 핵산추출시스템 플랫폼을 확장하고 ddPCR(droplet digital PCR) 등 차세대 분석법 기반의 진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COVID-19 특수와 더불어 현지 대리점과의 네트워크로 수출 증진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진단시장이 성장하면서 동사의 진단 시약과 기기 등 제품 판매량도 급증했다. 동사는 다년간의 연구 경험과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현지 대리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해왔으며, 그를 통해 수요가 있는 다양한 국가에 빠르게 동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동사의 2021년 2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동사는 유럽, 아시아, 중국, 북남미 지역을 아우르며 약 40개국에 제품을 납품하였다.

■ 추후 지속성장을 위해 RNA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규 제품 개발 추진

동사는 분자진단을 위한 핵산추출 시약과 핵산추출 기기의 판매 외에도 dsRNA(2중 나선형 RNA) 합성 서비스를 통해 일부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의 매출 비중(1.19%)은 크지 않으나 동사는 미국, 캐나다 등 10여 개국의 국가기관, 기업체와 연구소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CMO(원료위탁생산) 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RNA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제품은 동물용 의약품과 친환경 작물보호제이며, 각각 2022년과 2025년에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31.3	28.4	2.9	9.3	3.0	9.6	4.7	3.8	26.4	45	1,252	70.2	2.5
2019	39.5	26.2	1.5	3.8	-2.9	-7.3	-5.0	-2.3	408.9	-41	383	-	9.5
2020	853.0	2,059.2	540.4	63.4	320.5	37.6	100.3	65.9	36.7	3,925	6,406	3.5	2.1

기업경쟁력

핵산추출 시약 · 기기 제조기업

- 분자진단 검사에 필요한 핵산추출 시약 · 기기를 공급
-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산추출시스템 플랫폼 및 차세대 분석법 기반의 진단 고도화를 연구 중

지속성장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수출 확장

- COVID-19 종식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RNA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제품(동물용 의약품 등) 개발
- 해외 대리점과의 네트워크로 수출 확장 추진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산추출 시약과 기기 제품 다수 보유

- 동사 제품은 바이러스성 질환, 성 매개 감염병, 박테리아성 질환 등을 확진하는 진단 검사에 활용됨
- 대부분(75% 이상)의 매출은 핵산추출 시약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어 핵산추출 기기를 통한 매출을 시현 중
- RNAi 사업(dsRNA 합성 서비스)으로 일부 매출(2% 미만) 발생 중

최근 3개년(2018년~2020년) 매출실적 (단위: 억 원, K-IFRS 개별기준)

매출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핵산추출 시약	15.83	17.37	643.53
핵산추출 기기	8.76	13.35	199.34
기타(RNAi)	6.72	8.79	10.16
총매출	31.31	39.51	853.03

시장경쟁력

세계 분자진단 시장 (BIS Research,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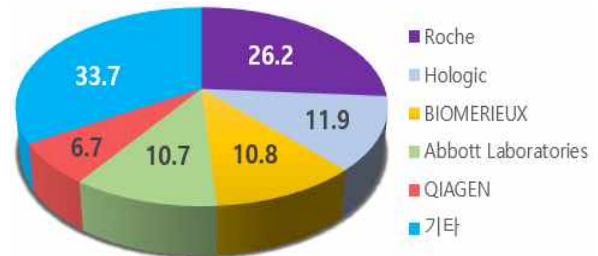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7년	95.4억 달러	연평균 10.89% ▲
2028년(E)	296.8억 달러	

국내 분자진단 시장 (Medicopharma, 2019)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6년	1,500억 원	연평균 4.4% ▲
2023년(E)	2,100억 원	

분자진단 주요 기업 시장점유율

(Molecular diagnostics Market, 2020), (단위: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 보존을 목표로 감염증 진단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분자진단(핵산추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 작물보호제와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 중임.
- 동사는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인증, CE(유럽 안전) 인증, ISO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 동사의 여성 근로자 비율,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임금 수준은 동 산업(C21) 대비 높은 수준이며 여성 임원 또한 보유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전문가인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동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1년 100% 무상증자를 진행하였고 2020년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함.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바이러스·박테리아성 질환을 진단하는 핵산추출 시약과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

동사는 분자진단에 사용되는 핵산추출 시약과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병원, 보건소, 수탁 검사기관 등의 다양한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핵산추출시스템 플랫폼의 확장과 차세대 분석법 기반의 진단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회사 개요 및 주요주주

제놀루션(이하 동사)은 2006년 2월에 설립되어, 분자진단용 핵산추출 시약과 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동사 반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는 2020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2007년 1월부터 공인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역량의 확장을 위해 2019년 7월 마곡지구 R&D센터 및 부설 연구소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동사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핵산추출 장비의 소형화 및 자동화를 통해 핵산추출시스템 플랫폼을 확장하고, ddPCR(droplet digital PCR) 등의 차세대 분석법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진단시장이 성장하면서 동사의 진단 시약과 장비 등 제품 판매량도 급증했다. 동사는 지난해에 유럽, 아시아, 중국, 북남미 지역을 아우르며 약 40개국에 제품을 납품하여 7,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 올해 4월에 해당 실적을 인정받아 한국무역협회로부터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을 수상했다. 2021년 9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동사의 계열사인 호일바이오메드이며, 동사의 지분 10.62%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주요주주는 김기욱 대표이사(6.27%), 김민호(대표이사외 특수관계인)(2.95%)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일자	내용
2006.02	동사 설립
2007.01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3.07	ISO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3.08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획득, CE(유럽 안전) 인증 획득
2015.01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인증 획득
2015.08	고위험성 감염체 유전자 검사 시약 식약처 허가 획득
2016.12	자동화 핵산추출 장비 및 유전자 시약 중국 국가 식품 약품 감독관리국(CFDA) 등록
2018.02	RoHS(유럽 유해물질 제한지침) 인증 획득
2019.07	자동화 핵산추출 장비 말레이시아 보건복지부 등록
2020.07	코스닥 상장
2021.04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상(한국무역협회)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홈페이지, 뉴스핌(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다량의 샘플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분자진단 제품 보유

혈액, 체액, 침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해 몸 밖에서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체외진단이라 부른다. 체외진단은 면역화학/면역분석, 임상 화학, 분자진단, 혈액학 등의 기술로 구분된다. 이 중 분자진단은 인체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DNA, RNA)을 검사하는 진단법으로, 바이러스 감염, 유전질환 등을 검사할 때 사용된다. 동사는 이 분자진단에 활용되는 핵산추출 시약과 기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소량 분석용, 대량 분석용, 반자동화, 전자동화 등 기능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는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dsRNA (2중 나선형 RNA) 합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부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2020년 동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매출 비중이 1.19%에 불과하지만, 동사는 미국과 캐나다 등 10여 개국의 기업체와 연구소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며 CMO(원료위탁생산) 시설 및 인프라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동사의 대표 제품은 ‘Nextractor® NX-Junior’, ‘Nextractor® NX-24SA’, ‘DNA/RNA Extraction Kit’ 등이 있으며, 기재된 순서대로 앞의 2개는 핵산추출 기기이고, 3번째 제품은 핵산추출 시약이다.

[표 2] 동사의 주요제품 및 특징

제품명		제품의 사진과 특징	
	Nextractor® NX-Junior		○ 현장 진단용 소형 전자동 핵산추출 장비로, 소량 분석 시에 용이한 신속성을 갖춘 장비 (8개 샘플 추출 가능)
	Nextractor® NX-24SA		○ 반자동화 시스템의 핵산추출 장비로, 연구용으로 사용 가능한 보급형 제품이며, 24개 샘플 추출 가능
기기	Nextractor® NX-48S		○ 한 번에 48개의 샘플을 추출 가능한 신속성과 편리성을 갖춘 제품으로, 동시 다량 검사가 가능하여 대량 검사 센터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제품
	일체형 전자동 분자진단 장비		○ 샘플 투입부터 PCR 준비까지 전자동화 시스템이며, 대량 샘플의 검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실험 오차가 적고 정확도가 높은 장비
시약	DNA/RNA Extraction Kit		○ 다양한 종류의 샘플에서 핵산을 추출하는 시약으로, 한번에 48개의 샘플에서 핵산추출 가능(검체 종류별 제품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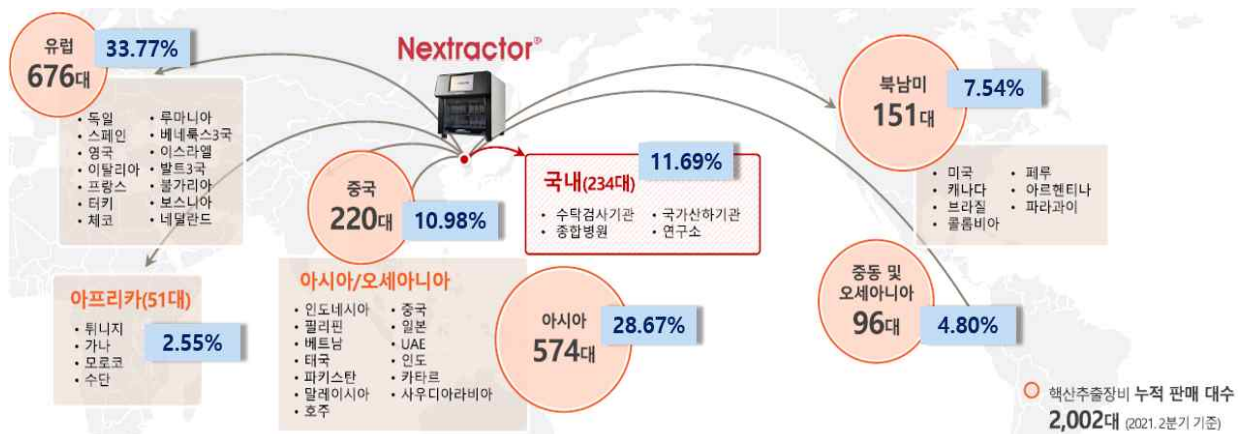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 자료(2021.08),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다년간 확보해 온 현지 대리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실적 증진

동사는 다년간의 연구 경험과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현지 대리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해왔다.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진단시장이 성장하면서 분자진단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때, 동사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다양한 국가에 빠르게 제품을 공급했다. 동사는 더 많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국내외 대리점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COVID-19 발생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60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각 대리점을 통해 동사는 빠른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매년 주요 학회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도 미국 아틀란타에서 개최되는 AACC(미국 임상 화학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의 이 같은 행보는 추후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속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 2020년 동사 핵산추출 장비의 글로벌 유통 현황



*출처: 동사 IR 자료(2021.08), NICE디앤비 재가공

동사의 IR 자료(2021)에 따르면, 2020년 동사의 핵산추출 장비 판매 비중은 유럽 33.77%, 아시아 28.67%, 중국 10.98% 순이었으며, 국내 판매량 11.69%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해외에서 판매되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동사의 수출 비중은 작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증가했다. 2018년에는 내수 매출의 비중이 더 컸던 반면, 2019년 수출 비중이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수출이 전체 매출의 92.76%를 차지했다.

[그림 2]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동사의 매출실적 (단위: 억 원, K-IFRS 개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표 3] 최근 3년간 동사의 매출 유형별 비중

(단위: %, K-IFRS 개별기준)

매출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비중	비중
수출	34.24	57.00	92.76
내수	65.76	43.00	7.24
합계	100.00	100.00	100.00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표 4] 동사의 2018년~2020년 수출·내수 현황

(단위: 억 원, K-IFRS 개별기준)

구분 유형	매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핵산추출 시약	수출	1.31	14.91	595.61
	내수	14.52	2.46	47.92
	소계	15.83	17.37	643.53
핵산추출 기기	수출	5.99	2.30	189.88
	내수	2.77	11.05	9.46
	소계	8.76	13.35	199.34
RNAi (dsRNA 포함)	수출	3.42	5.31	5.80
	내수	3.30	3.48	4.36
	소계	6.72	8.79	10.16
총계	수출	10.72	22.52	791.29
	내수	20.59	16.99	61.74
	합계	31.31	39.51	853.03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총 매출 증가세, 2020년은 전년 대비 20배 이상 급성장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에 따르면, 동사의 매출은 핵산추출 시약, 핵산추출 장비, RNAi 사업(dsRNA 합성 서비스 포함)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8년~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동사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동사는 2018년 31.3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9년에는 39.51억 원, 2020년에는 853.0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체 매출이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0년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핵산추출 시약·기기 매출의 증가로 총 매출이 전년 대비 20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3년간 동사의 핵산추출 시약 부문의 매출은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핵산추출 기기 부문 매출은 2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동사의 핵산추출 시약 매출액은 STD(성 매개성 감염질환), HBV(B형 간염 바이러스), HPV(인유두종(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 TB/NTM(결핵/비 결핵균), CMV/EBV(세포 거대 바이러스/엡스테인 바이러스), RV(호흡기 바이러스) 등 각 검체에 따른 추출 키트 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다. 동사의 RNAi 사업 부문은 siRNA/shRNA 합성 서비스와 dsRNA 합성 서비스로 나뉜다. RNAi는 RNA interference의 약자로, 작은 크기의 RNA(small size RNA)가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RNA가 siRNA와 shRNA이며, 동사는 2019년까지 siRNA/shRNA 합성 서비스를 수행하다가 현재는 dsRNA 합성 서비스만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RNA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동물용 의약품과 친환경 작물보호제 등의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COVID-19 종식 이후에도 동사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5] 동사의 2018년~2020년 매출 비중 (단위: %, K-IFRS 개별기준)

구분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주요제품	비율	주요제품	비율	주요제품	비율
핵산 추출 시약	STD 추출 키트	50.55	STD 추출 키트	43.96	STD 추출 키트	75.44
	HBV 추출 키트		HBV 추출 키트		HBV 추출 키트	
	HPV 추출 키트		HPV 추출 키트		HPV 추출 키트	
	TB/NTM 추출 키트		TB/NTM 추출 키트		TB/NTM 추출 키트	
	CMV/EBV 추출 키트		CMV/EBV 추출 키트			
	RV 추출 키트		RV 추출 키트		RV 추출 키트	
핵산 추출 기기	Nextractor®	27.98	NS-48	33.79	NS-48	23.37
			NS-48S		NS-48S	
			Nextractor®		Nextractor®	
			NX-Junior		NX-Junior	
RNAi	RNAi(siRNA/shRNA)	21.47	RNAi(siRNA/shRNA)	22.25	long dsRNA	1.19
	long dsRNA		long dsRNA			
합계		100.00		100.00		100.00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NICE디앤비 재구성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동사의 핵심기술인 RNAi를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며 녹색 사업 인증 획득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생태계에 유해한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작물보호제와 더불어, 꿀벌 유충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Virus) 증식 억제를 위한 동물(꿀벌)용 의약품 개발 중이다. 또한, 동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성 감염증의 분자진단 시스템 및 핵산추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 과정 중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고객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고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생산 효율성이 향상된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인증, CE(유럽 안전 인증), ISO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해 품질관리 체계의 구축과 동시에 품질 경쟁력 또한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는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후배들을 위한 교육, 연구시설 제공을 위한 인문사회관 건립기금으로 3억 원을 기부하였으며(2021.07) 아산병원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동사는 성희롱 방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의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인의 안전보건 책임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외 추가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경조 휴가, 안식년 휴가, 자녀 학자금 및 경조금 지원 등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사 반기보고서(2021.06)에 따르면, 동사는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중이며 여성 임원을 보유 중이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44.1%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38.6%를 상회한다.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91.0%로 산업 평균인 80.0% 이상이며,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176.9%로 산업 평균인 96.9%보다 약 80%p를 상회하는 수치로서, 동사는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33	28,899	1.3	6.20	12,757	50,184
여	26	18,195	2.3	6.40	11,615	40,128
합계	59	47,094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1.0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3] 산업 평균(C29) 대비 동사의 여성 근로자 고용 수준 (단위: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반기보고서(2021.06)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여 지배 구조와 경영방식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동사는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활동으로 2021년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4,783,590주)를 배당하는 100% 무상증자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 처음으로 현금배당을 하였고 배당 수익률은 2.62%이다. 동사는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II. 시장 동향

수요의 증가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분자진단 시장

혈액, 체액 등을 이용해 몸 밖에서 빠르게 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시장은 기술의 발전을 동반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분자진단 시장은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 또한 분자진단에 필요한 핵산추출 시약, 기기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상승세가 전망되고 있다.

■ 체외진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자진단 시장

[그림 4] 체외진단 영역별 세계 시장 점유율 (단위: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19), NICE디앤비 재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고서(2019)에 따르면, 인체 유래 물질을 통해 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기술 중 분자진단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분자진단은 외부의 바이러스·세균에 의한 감염도가 높아 감염병, 유전병 등을 진단할 때 활용되며, 체외진단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자진단 시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며 그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자진단 시장은 용도에 따라 감염증 진단, 암 검사, 유전자 검사, 기타 용도로 구분된다. 2020년 MarketsandMarkets 시장 자료에 따르면, 감염증 진단 용도는 연평균 10.7%, 암 검사 용도는 연평균 16.7%, 유전자 검사 용도는 연평균 11.5%, 기타 용도는 10.2%의 성장률을 보이며 각각 시장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주요제품은 대부분 감염증을 진단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5] 분자진단 용도별 세계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



*출처: MarketsandMarkets(2020), NICE디앤비 재가공

발생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조기 진단을 통해 질환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의료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진단시장은 용도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시장보다 큰 폭으로 성장 중인 분자진단 해외 시장

BIS Research의 시장 자료(2020)에 따르면, 분자진단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7년 95.4억 달러를 형성한 이후, 연평균 10.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28년에는 296.8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Medicopharma의 자료(2019)에 따르면 국내 분자진단 시장은 4.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오는 2023년에 2,100억 원의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세계 분자진단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그림 7] 국내 분자진단 시장규모 (단위: 억 원)



[표 7] 지역별 분자진단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

지역	2021(E)	2026(E)	CAGR
북아메리카	70.7	124.6	12.0
유럽	58.9	106.5	12.6
아시아·태평양	34.2	64.2	13.4
라틴아메리카	11.6	17.5	9.6
중동·아프리카	3.5	5.5	9.4

*출처: MarketsandMarke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Molecular Diagnostics Market(2020)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분자진단 시장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규모가 가장 크고,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동사는 작년에 유럽, 아시아,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 핵심추출 기기를 수출하면서 전체 판매량의 88% 이상을 해외 판매에 성공한 바 있다.

분자진단 산업은 상대적으로 국내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높은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수출물량이 급증한 동사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2020년 더벨(the bell)에서 조사한 ‘국내 COVID-19 진단 키트 개발업체의 영업이익률 순위’ 에서 동사는 수젠텍, 오상헬스케어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동사는 이후 국내외 대리점 확장, 유통망 정비, 주요 학회 참석을 통한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당 실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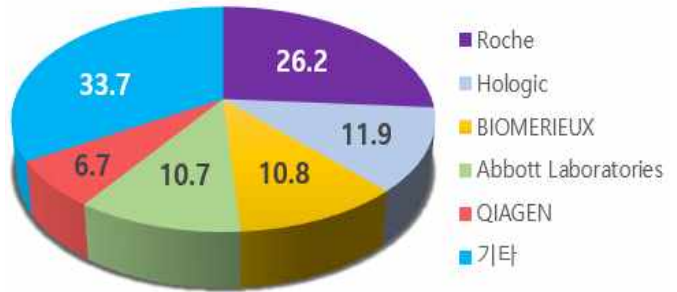
■ 국내외 분자진단 시장의 주요 기업 및 시장점유율

Molecular Diagnostics Market의 시장 자료(2020)에 따르면, 세계 분자진단 시장은 상위 5개 주요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상황이다. 점유율 1위 기업은 Roche(스위스)이며, 동 기업은 2020년 기준 26.2%의 세계 분자진단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어 Hologic(미국)이 11.9%, BIOMERIEUX(프랑스)가 10.8%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으며, Abbott Laboratories(미국)는 BIOMERIEUX와 유사한 점유율(10.7%)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QIAGEN은 5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6.7%)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Roche는 제약 부문과 진단 부문의 2개 사업영역을 운영하며 간염, 당뇨병, 혈액 응고 등에 대한 다수의 진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Hologic은 자회사인 Gen-Probe를 통해 분자진단 시장에서 활동하며, 감염성 질환의 확인을 위한 프리미엄 진단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BIOMERIEUX는 체외진단 분야

[그림 8] 분자진단 주요 기업 시장점유율 (단위: %)



*출처: Molecular Diagnostics Market(2020), NICE디앤비 재구성

선도 기업으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다양한 진단 솔루션과 임상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분자진단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활동 중이다. Abbott Laboratories는 핵심 실험실, 분자, 신속진단 등의 하위 부문으로 구성된 진단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QIAGEN은 바이러스 핵산 정제, DNA 분석, 분자진단을 위한 진단 테스트 키트 및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자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해가고 있다.

한편, 국내 분자진단 시장은 다양한 기업이 기술 중심의 경쟁적 시장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융합연구정책연구센터의 자료(2020)에 따르면, 국내 분자진단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바이오니아(BIONEER), 씨젠(Seegene) 등이 있다. 각 기업은 진단 항목, 방식, 정확도 등의 항목에서 차별점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하여 기술 개발에 매진하면서 기능이 향상된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표 8] 참조).

[표 8] 국내 분자진단 주요 기업의 기술 및 제품

기술	개폐부터 샘플 분주까지 핵산추출 전 과정 자동화 기기 보유	Real-time PCR 기술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주요 유전자 검사 가능	멀티 샘플 분석용 High-throughput digital PCR 장비 개발	Digital PCR 기반의 염색체 이상 산전 선별검사 기술개발
주요 제품				
기업	바이오니아 (BIONEER)	씨젠 (Seegene)	레보스케치 (RevoSketch)	랩지노믹스 (LabGenomics)

*출처: 한국과학기술원 융합연구정책센터(2020),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주요 경쟁기업을 QIAGEN(해외), 바이오니아(국내)로 두고 있으며, 과정의 신속성과 편의성 및 경제성을 갖춘 진단 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사는 지난해 실적 호조로 확보한 자금을 R&D 영역에 투자하여 기술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며, 차후에는 해외에 현지 생산 기지를 구축하여 확보된 수출 판로를 꾸준히 늘려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Ⅲ. 기술분석

COVID-19 종식 이후에도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해 RNA 기반기술 연구 매진

동사는 작년 성과로 확보한 자금을 R&D 분야에 투자하여 기존 제품의 발전과 신제품의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RNA 기반기술을 토대로 개발 중인 동사의 신제품(동물성 의약품, 천연 작물보호제)은 COVID-19 종식 이후에 동사의 매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 핵산추출 플랫폼 강화

분자진단은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DNA, RNA)을 검사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 암 및 유전질환의 유무 등을 진단하는 기술이다. 분자진단 기술은 최근 COVID-19 등 감염병의 확산과 높은 정확도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사는 분자진단에 필요한 핵산을 추출하는 시약과 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사용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한 핵산추출 장비를 제조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강점을 갖추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평균 추출시간이 짧아 경쟁사 대비 작업 수행 시간이 단축되며,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 장비 설치 시 공간 편의성을 갖는다. 동일 조건에서 96개의 샘플을 분석할 때, 동사의 핵산추출 장비를 활용하면 경쟁사보다 약 두 배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동사의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비교

성분명	동사 제품	경쟁사(R사) 제품	경쟁사(P사) 제품
최대 처리량/1회	48 Samples	96 Samples	96 Samples
총 추출시간(min)	15	60	55
평균 추출시간/test	0.3 min	0.6 min	0.6 min
크기(W×H×D)	364×386×420 mm	1360×1000×815 mm	800×900×800 mm

*출처: 동사 IR 자료(2021.08),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이러한 기술 강점을 기반으로 핵산추출 플랫폼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형 추출 장비를 통해 분자진단을 보편화하고, 대형 전자동 장비를 통해 진단 검사의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검사의 표준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업시장과 동물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COVID-19 유행이 끝난 후에도 다양한 응용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차세대 분석법을 활용한 진단 기술의 개발

동사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ddPCR(Droplet Digital PCR) 및 Liquid Biopsy(액체 생체 검사, 이하 액체 생검) 등의 차세대 분석법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NGS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나누어 염기서열을 읽고, 해당 서열을 조립하여 전체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의학 분야에서 NGS 기반의 임상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유전체 분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NGS 기반 변이 Assay 키트’와 ‘NGS library prep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감염증이나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NGS 기반의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의 임상 적용과 HPV Test를 위한 Illumina NGS 기반 검사법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지속 중이다. 아울러, 동사는 2021년 7월, 서린바이오사이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린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동사의 핵산추출 플랫폼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판매량 증가는 물론 NGS 기반 변이 Assay 키트와 ‘NGS library prep 자동화 장비를 연계한 공정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서린바이오사이언스와 협업을 지속하며 국내외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동사는 ddPCR 방식의 HPV RNA 검사법도 개발하고 있다. ddPCR은 2만 개의 droplet으로 쪼개어 증폭한 후 타겟 유전물질을 계수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정확도와 민감도가 높고 절대적 정량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표 10] 동사의 NGS 기반 제품 및 특징

제품명	제품의 사진과 특징
NGS 기반 변이 Assay 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까지 확인 가능한 제품으로, 기존 NGS 기반 분석법보다 검사 시간이 짧음 ○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Sequencing Analysis Pipeline 제공
NGS library prep 자동화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전자동화 기기로, 실험 오차를 줄여 검사할 수 있는 기기

*출처: 동사 IR 자료(2021.08),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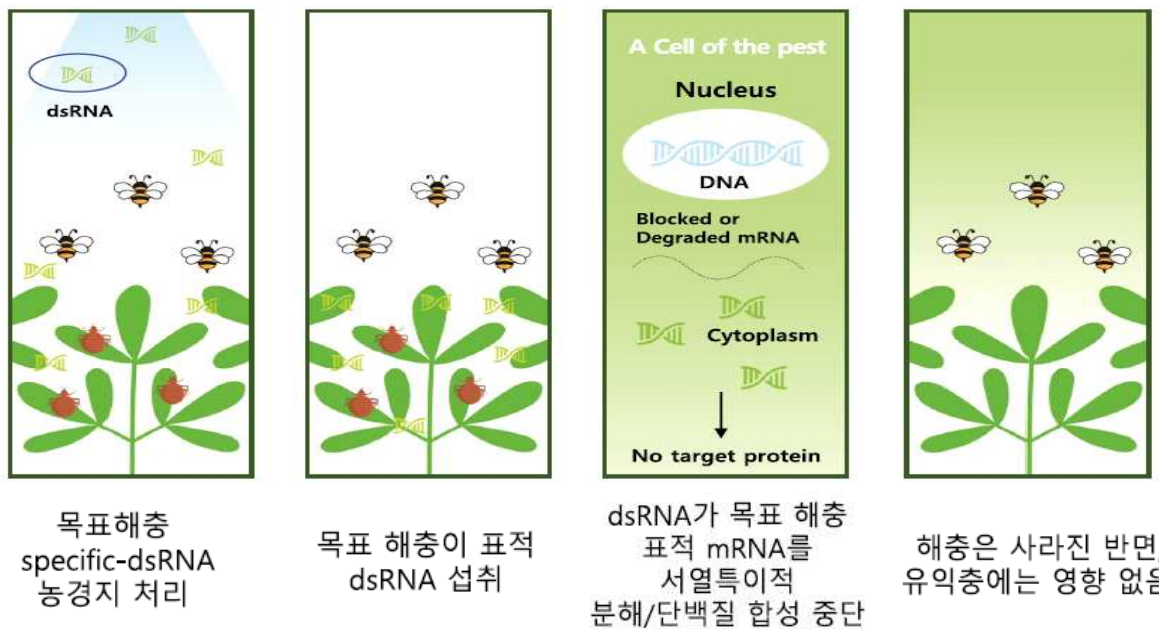
동사는 액체 생검을 통한 암 조기 진단 및 엑소솜과 CTC(Circulating Tumor Cell)의 분리와 핵산추출을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액체 생검은 수술 중인 조직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조직 생검(Tissue Biopsy)의 단점을 보완한 생체 검사 방식으로, 조직 생검 보다 위험도가 낮고 비용이 저렴하며 정보의 반복적 획득이 가능하다. 액체 생검은 혈액, 척수액, 소변 등에 존재하는 CTC, 엑소솜, cfDNA(cell-free DNA, 세포 유리 DNA) 등을 활용하여 수행된다. 이에, 동사는 엑소솜과 CTC의 분리 및 핵산추출을 위한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동사의 기술로 액체 생검 암 진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사는 올해 8월, 카이스트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2종의 엑소솜 분리 기술을 취득했다. 동 기술은 폴리페놀을 이용해 엑소솜을 신속히 분리하는 기술로, 순도 높은 엑소솜의 채취가 가능하다. 동사는 현재 개발 중인 자동화 플랫폼 개발에 해당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추출 시스템 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RNAi 기반의 동물용 의약품 및 천연 작물보호제 개발

동사는 보유하고 있는 RNA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신제품은 동물용 의약품과 친환경 작물보호제로, dsRNA 등 작은 크기의 RNA(small size RNA)가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RNAi 현상을 포함한다. 동사는 신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COVID-19 종식 이후에도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의 동물용 의약품인 ‘허니가드-R액’은 꿀벌 흑사병이라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virus, SBV)을 치료하는 꿀벌용 유전자 치료제이다. 동 치료제는 올해 8월에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동사는 ‘허니가드-R액’이 상용화되면 한국을 넘어 인도, 태국, 네팔, 미얀마 등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를 크게 겪었던 아시아 지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해당 치료제를 판매할 계획이다.

동사가 개발 중인 두 번째 신제품은 RNAi 기반의 농약인 천연 작물보호제이다.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RNAi 기술을 활용하면 해충을 방제하여 화학 물질 없이 목표 해충을 사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동사는 현재 병해충의 방제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그림 9] RNAi 기반 농약(천연 작물보호제)의 특징 모식도



*출처: 동사 IR 자료(2021.08)

[표 11] 동사 연구역량 지표

(단위: 억 원, %, 건 수, K-IFRS 개별기준)

연구개발투자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일부)
매출액	31.31	39.51	853.03	✓ 유전자 진단을 위한 cfDNA 추출용 나노입자 및 다량 자동화 구축
연구개발비	3.12	4.62	12.42	✓ 감염성 질환의 현장 응급검사를 위한 동시 다중, 이동식 핵산 추출기기 및 시약 개발
연구개발투자비율(%)	9.96	11.70	1.46	✓ DNA/RNA 추출법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표면 개질된 Magnetic Bead 및 핵산추출 키트 개발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적(건 수)	3	2	4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TIS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확보한 영업이익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COVID-19 종식 이후를 대비하는 기업

[그림 10] SWOT 분석



IV. 재무분석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영업실적 급증, 2021년 2분기 실적 개선세 지속

2020년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체외진단기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2021년 2분기까지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 2020년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수출물량 증가

동사의 사업 분야는 분자진단 의료기기사업 및 RNAi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자진단 의료기기사업은 STD(성 매개성 감염질환) 추출 키트 외 핵산추출 시약 및 핵산추출 기기(NX-48 등)로 분류되며, RNAi 사업의 주요제품은 dsRNA가 있다. 2020년 별도기준 부문별 매출 구성은 핵산추출 시약 75.44%, 핵산추출 기기 23.37%, RNAi 제조 1.19%를 각각 차지하였고, 수출 비중은 92.76%로 전체 매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동사는 중국 및 동남아, 유럽지역, 중동지역, 중남미지역, 캐나다 등에 대리점을 선정하여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리점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수출물량이 크게 확대되어 매출 규모가 급증하였다.

[표 12] 동사 2018년~2020년 및 2021년 2분기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개별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2분기	2021년 2분기
매출액	31.3	39.5	853.0	225.4	379.7
매출액증가율(%)	28.3	26.2	2,059.5	-	68.5
영업이익	2.9	1.5	540.4	135.3	238.3
영업이익률(%)	9.3	3.8	63.4	60.0	62.8
순이익	3.0	-2.9	320.5	47.6	194.0
순이익률(%)	9.5	-7.3	37.6	21.1	51.1
부채총계	23.2	107.9	224.8	-	195.4
자본총계	88.0	26.4	612.9	-	772.9
총자산	111.2	134.3	837.7	-	968.3
유동비율(%)	338.3	66.1	400.6	-	554.2
부채비율(%)	26.4	408.7	36.7	-	25.3
자기자본비율(%)	79.1	19.7	73.2	-	79.8
영업현금흐름	1.5	-0.8	459.7	125.1	163.7
투자현금흐름	-29.3	-31.8	-183.0	-57.0	-173.2
재무현금흐름	58.3	18.5	153.5	30.4	15.1
기말 현금	50.1	36.2	439.6	133.0	457.2

※ 분기: 누적 실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 2020년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영업실적 큰 폭 개선

동사는 2020년 COVID-19 팬데믹에 따른 분자진단 의료기 사업 부문 호조로 전년 대비 2,059.2% 증가한 85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다. 또한, 매출 증가 및 원가율 감소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년 1.5%에서 63.4%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00% 이상 증가한 540.4억 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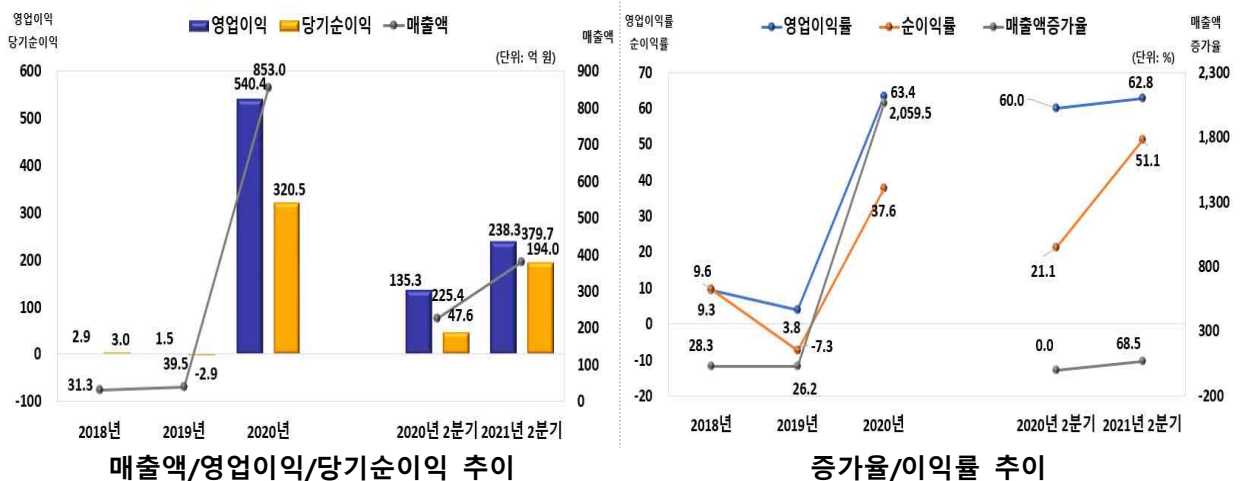
한편, 2020년 말 기준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 72억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영업이익 급증으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112억 원 발생하였다. 다만, 급격한 영업이익 개선에 힘입어 매출액 순이익률은 37.6%를 기록하였고, 순이익 규모는 320.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수익성을 나타내며 흑자전환 되었다.

■ COVID-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2021년 2분기 양호한 영업실적 지속

COVID-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전방 산업군의 수요 지속에 힘입어 2021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4% 증가한 379.7억 원을 시현한 가운데, 매출액 영업이익률 62.8%, 매출액 순이익률 51.1%를 기록하였고, 분기 누적 영업이익 238.3억 원(+76.1% YoY), 분기 누적 순이익 194억 원(+307.6% YoY)을 기록하며 양호한 영업실적을 이어갔다.

[그림 11] 동사 2018년~2020년 및 2021년 2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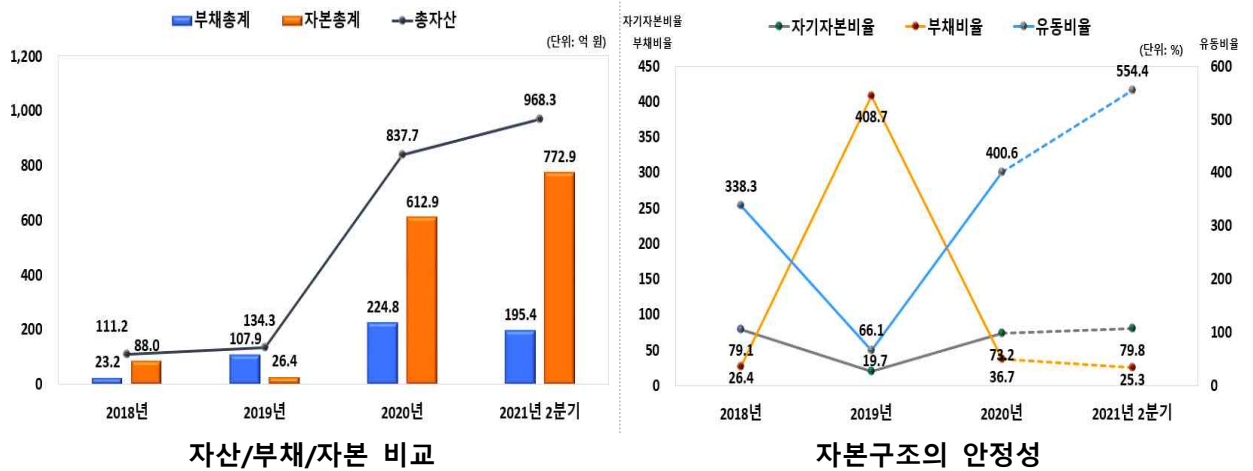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K-IFRS 개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2] 동사 2018년~2020년 및 2021년 2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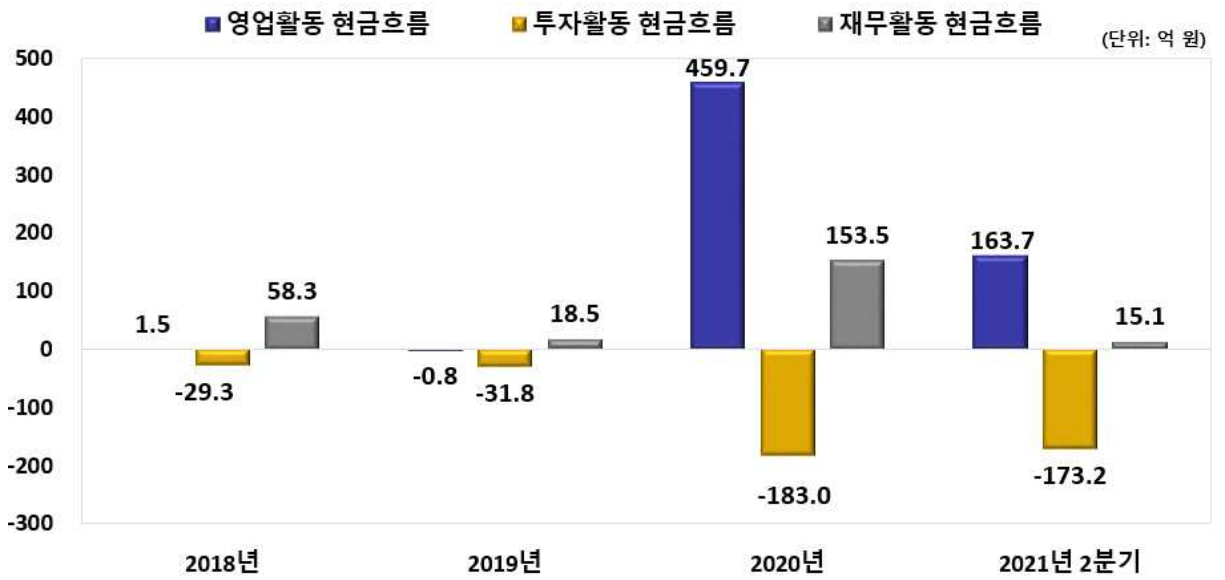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NICE디앤비 재구성

■ 지속되는 영업실적 개선세에 힘입은 대규모 현금 유입

2020년 분자진단 의료기 사업 부문의 호조로 영업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과정에서 459.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며, 2020년 7월경 일반공모 청약에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07.8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등, 대규모 현금이 단기에 창출되었다. 이에 반해 시설 확충을 위한 유형자산의 취득 및 금융상품의 취득, 단기차입금 상환, 운영자금 사용 등 유출된 현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현금성 자산 보유량이 기초 36.2억 원에서 기말 439.6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한편, 2021년 상반기 기준 지속적인 영업실적 개선세를 나타내며 영업활동상에서 163.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등, 대규모 현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바, 2021년 상반기 기준 현금성 자산 보유량은 457.2억 원으로 2020년 12월 말 439.6억 원 대비 확대되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현금 수준의 유동성을 지니는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의 보유량이 2020년 12월 말 489.6억 원에서 2021년 6월 말 607.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바, 2020년 이후 동사의 현금흐름은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 동사 2018년~2020년 및 2021년 2분기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반기보고서(2021.06)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COVID-19 종식 여부에 따른 중장기적 불확실성이 있으나 단기 성장세는 지속 예정, 주력 사업의 강화와 RNA 기반기술 활용한 사업 다각화가 긍정적으로 전망됨

COVID-19 팬데믹 상황에 힘입어 급격한 매출 성장을 보인 만큼 향후 COVID-19 종식 직후에는 영업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RNAi 사업 등 신규성장동력의 본격화와 주력 사업 부문인 분자진단 의료기 사업영역의 강화로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 국내외 유통망 확대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분자진단 의료기 사업 부문 강화

동사는 2021년 7월 27일 서린바이오사이언스와 핵산추출 플랫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추후 서린바이오사이언스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제놀루션의 핵산추출 플랫폼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동사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변이 유전자의 NGS 검사법과 자동화 장비를 연계한 공정개발이 완료되면 서린바이오사이언스와 협업을 통해 국내외로 플랫폼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동 소형장비 개발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으며, 2021년 9월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국제 임상 화학회(AACC)의 국제 진단 장비·시약 전시회에 참가해 코로나 변이 진단 키트, NGS Library Prep 등의 신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RNA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로 사업 다각화

동사는 RNA 기반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인 동물용 의약품(2022년 상용화 예정)과 친환경 작물 보호제(2025년 상용화 예정)를 개발 중이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하여, 2021년 8월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인 ‘허니가드-R액’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동사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동사의 미래성장동력인 RNA 기반 그린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추후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사의 RNAi 사업은 현재 비주력사업으로 2020년 전체 매출기준 1.19%에 불과하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동사의 동물용 의약품 상용화 계획

구분	Indication	Discovery	Research	Pre-Clinical	Clinical
동물용의약품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 억제제	→			2021 3Q 진행예정
2021년(예정)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및 개시				
2022년(예정)	임상시험 완료 및 품목허가 득 후 제품 판매				

*출처: 동사 IR 자료(2021.08)

■ 2021년 연간 영업실적은 2020년에 이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COVID-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 들지 않고 있으며, 람다와 뮤 변이 등 다양한 변이종이 지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안에 COVID-19 팬데믹의 종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21년 하반기에도 동사의 주력 사업인 분자진단 의료기 사업 부문은 지속적인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사의 미래성장동력인 RNA 기반기술 제품군의 실적이 아직 미미한 상태에서 치료제, 신규 백신 등의 등장으로 팬데믹 종식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5] 동사 최근(20년 09월~21년 09월)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09)